

| | | |
|--------|------|---|
| 보도설명자료 | 보도일시 | 2020년 10월 22일(목) 배포시 |
| | 담당자 | 이종관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26, kwanlee@kdi.re.kr) |
| | 배포일시 | 2020년 10월 22일(목) 13:00 |
| | 배포부서 | 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 |

「코로나로 일자리 580만개 증발」 보도 관련

<언론 보도내용>

- 10월 22일자 한국일보 「코로나로 일자리 580만개 ‘증발」, 이투데이 「580만개 일자리 증발... 나라살림 밀천 ‘지식산업’도 위태」 기사는 10월 21일 발표한 KDI 현안분석 ‘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’ 보고서를 인용하며,
 - 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약 5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”고 보도했으나 이는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름.

<KDI 입장>

- 보고서 5페이지 그래프 ‘코로나19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’의 월별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(저량)이므로, 월별 수치를 합산하여 580만개 일자리가 증발했다고 해석할 수 없음.